



컨버전스 시대 승부처 '멀티기능' ③ 국내 단말

MP3P · 내비 · PMP '융합' 추세

경쟁력 위해 선택 아닌 '필수' ... 휴대폰 컨버전스 '정조준'

디지털기기가 대중화하면서 소비자들의 취향이 까다로워지고 있다. 이전의 독립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들의 고유 기능만 구입하던 소비자들이 이제는 한가지 기능만을 고려하지 않는 추세다. 이로 인해 관련업계는 다양한 기능을 하나로 집적하는 디지털 컨버전스화에 골몰하고 있다. 부품 성능향상, 가격하락 및 압축기술의 발전으로 컴퓨터·통신기기·가전제품 등 디지털 기기의 컨버전스화가 가속화되면서 문자·화상·소리·영상 등을 하나의 기기로 해결하는 융복합 현상은 업계의 차별화 전략이자 중요한 승부수가 될 전망이다.

글:임일곤 기자(igor@itn.co.kr)



레인콤 T10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아 더 작아지면서도 모든 기능을 갖춘 강력한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제조 업체들이 골몰하고 있다. 현대축구에서 포지션 구분이 모호할 정도로 다양한 공격방식을 펼치는 박지성이 멀티플레이어로서의 진가를 발휘한 것처럼, MP3P·내비게이션·PMP 등의 기기들도 서로의 기능을 흡수해야 소비자들의 지갑을 두드릴 수 있게 된 것이다.

MP3P, '동영상' 넘본다

초기 MP3P는 카세트 테이프를 재생하는 소니의 '워크맨'을 대체한 제품에 불과했다. 당시 MP3P는 'mp3' 파일만 재생해낸 것만으로도 혁신적인 '물건'이었다. 하지만 최근 등장하는 MP3P는 mp3 파일 외 WMA·OGG·ASF·MPEG 등을 읽는 것은 물론 음악 재생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탈피, 동영상 재생기로 변화하고 있다.

레인콤이 최근 출시한 MP3P 'E10'은 1.5인치 칼라 TFT-LCD 화면을 내장한 제품. 때문에 음악 재생은 물론 동영상 재생·FM라디오·플래시 게임·음성녹음·이미지 뷰어(슬라이드 쇼 포함) 기능을 갖췄다. 특히 기기 전면부에 위치한 4개의 내비게이션 버튼으로 메뉴를 선택해 작동하는 단순하고 편리한 유저 인터페이스(UI)를 채택했다.

E10에는 TV리모콘과 기능성 음악을 활용한 웰빙(Well-being) 등 새로운 기능이 추가돼 눈길을 끈다. TV 리모콘으로 활용할 경우 원격으로 개인이나 집안에서 사용하는 TV 전원을 켜고 끌 수 있으며 채널 및 음량조절을 할 수 있다. 단 TV 사양에 따라 지원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외에도 뇌파를 이용한 기능성 음악서비스인 비타민(Btamin)을 내장, 유저들이 한결 안정된 심리 상태에서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비타민은 마음을 편안히 해주고 활발한 두뇌활동을 도와주는 음악과 명상으로 구성된 웰빙 컨텐츠 서비스다.

코원시스템은 지난 1월 지름 0.85인치의 초소형 HDD를 채용한 MP3P 'iAUDIO 6'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26만 컬러를 지원하는 1.3인치 액정이 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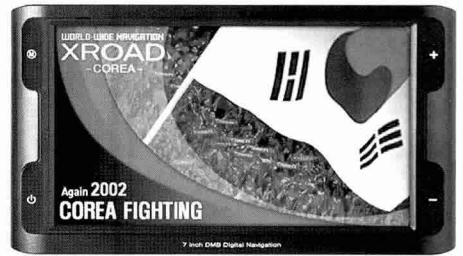
코원 iAUDIO 6

려있어 MPEG4, XviD 등 동영상 파일도 쉽게 변환해 감상할 수 있다. 또 CD나 카세트 플레이어에 연결하면 바로 녹음할 수 있는 다이렉트 인코딩 기능도 특징. 이외에도 텍스트 이미지 뷰어·음성녹음·FM라디오 등을 살렸다.

내비게이션, DMB달고 시장 '쾌속질주'

지상파 DMB를 수신할 수 있는 일체형 내비게이션 제품들이 인기다. 일체형 제품들은 7인치의 넓고 시원한 화면을 제공, 기존 3-4인치보다 지상파 DMB 시청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는 평이다. 최근 시장에 선보인 내비게이션에는 DMB 기능을 비롯해, A/V in 포트를 통해 DVD 영화감상과 MP3, 이미지 파일 등 멀티미디어 등이 가능하다. 때문에 휴가철을 맞이, 야외로 나가는 바캉스족들의 수요가 늘고 있다. 또 하루종일 도로를 달려야 하는 화물트럭이나 택시 등의 운전 기사들에게도 필수 제품으로 여겨지고 있다.

제품별로 살펴보면 카포인트가 지난 5월 출시해 출시 한 주만에 2000여대를 판매한 '엑스로드 코리아'는 지상파 DMB 일체형 내비게이션 제품. 이 제품은 만도



카포인트 엑스로드 코리아

맵소프트의 최신 전자지도인 맵피를 사용했으며, 16:9 와이드 7인치 화면에 AV-in를 지원해 DVD플레이어나 Dvix플레이어 등과 연결이 가능하다.

하이온콤은 내비게이션과 지상파DMB가 한 화면에서 동시에 실행 가능한 '오버레이(Overlay)' 기능을 국내 최초로 구현한 7인치 'HN-3300T'를 지난 3월 출

“휴대형 멀티미디어기기의 ‘꽃’으로 평가 받는 PMP(포터블 멀티미디어 플레이어)가 또 한번의 도약을 시도한다. 그동안 지상파 DMB와 내비게이션을 탑재하며 진화해 온 PMP가 하반기에는 통신기능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예정”

시했다. 이 제품은 3차에 걸친 예약판매가 각각 이틀 만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업계 최초로 지상파DMB와 내비게이션을 하나의 화면에서 동시에 볼 수 있게 하는 ‘오버레이’ 기능을 갖췄다는 것. 이 외에도 최고 수준의 GPS수신율을 자랑하는 서프스타III칩을 채용했으며, 맵은 아이나비를 탑재했다.

유경테크놀로지스는 지난 5월 중순경 지상파 DMB 일체형 내비게이션 빌립 N70'을 출시했다. 슬림, 경량형의 7인치 지상파 DMB 일체형 내비게이션 ‘빌립 N70’은 최신 아이나비맵 5.2버전을 탑재했으며, 고감도 서프3 칩을 장착해 고가도로나 빌딩 숲 등에서도 끊기지 않고 내비게이션을 지원, 정확한 지도 안내가 가



유경테크놀로지스 N70



능하다. 이 제품도 오버레이 기능을 지원해 외부AV입력(차량용 DVD기기 등)으로 영화를 보면서 내비게이션을 작동할 수 있다. A/V in 포트 통해 차량에 장착된 DVD를 연결하면 DVD 화질의 영화감상이 N70에서 가능하며, 후방감시카메라가 장착된 경우 N70화면을 통해 후방의 상황 감시도 가능하다.

또 듀얼코어 CPU와 멀티미디어 가속기, 그리고 DMB전용 프로세서 탑재로 동영상과 MP3, 이미지 파일 등 멀티미디어 재생이 가능해 PMP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PMP, 통신기능 탑재로 휴대기기의 꽃

휴대형 멀티미디어기기의 ‘꽃’으로 평가 받는 PMP(포터블 멀티미디어 플레이어)가 또 한번의 도약을 시도한다. 그동안 지상파 DMB와 내비게이션을 탑재하며 진화해 온 PMP가 하반기에는 통신기능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예정이다. 대부분의 PMP 업체에서는 3세대 PMP로 ‘와이파이(WiFi)’ 추가를 계획하고 있다. 고속하향패킷접속(HSDPA)서비스의 경우, SK C&C가 유일하게 탑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기능을 탑재한 PMP는 활용도면에서 PDA와 울트라 모바일피시(UMPC)급의 성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휴대형기기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유경테크놀로지스 P2



티노스 블루핀

먼저 유경테크놀로지스가 7월말 선보일 'P2'는 인터넷 기능을 활용하기 위한 단순 USB 타입이 아닌 제품과 조화를 이루는 타입 네트워크 확장 모듈을 제공한다. 착탈식 모듈은 PC나 노트북 등에 이용 가능한 PMP/PC 겸용 와이파이 무선랜 착탈식 모듈이 될 계획이다. 티노스가 선보일 '블루핀'의 경우, 무선랜 카드를 장착할 수 있는 USB 슬롯이 제품 좌측에 마련돼 있어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블루핀은 디지털카메라가 제품 뒤에 달려 있어 인터넷 활용도가 뛰어나다. 이 회사 마케팅 담당 황선민 이사에 따르면, "스타벅스에서 블루핀에 이동식 키보드를 연결해 메신저와 블로그 등을 사용했다"며 "디지털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바로 올리는 것도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P2'와 '블루핀'에서는 '윈도우 CE'를 운영체제로 했으며, AMD를 CPU로 채택해 강력한 멀티태스킹과 무선통신 기능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MS의 오피스 프로그램인 워드·파워포인트·엑셀을 '뷰어'를 통해 사용할 수 있으며, 제품에 따라 문서작성도 가능할 전망이다. '블루핀'의 경우, 이동식 키보드를 따로 장착하면, '워드'를 통해 문서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서브 노트북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존 PMP와 달리 윈도우 CE를 운영체제로 채택했다는 것도 3세대 PMP를 규정하는 지표가 될 전망이다. 현재 몇몇 제품들이 리눅스 기반의 운영체제를 지원하지만 향후 출시될 PMP에서는 윈도우 CE가 대세를 이룰 전망이다. 또 이들 제품에는 내비게이션과 지상파 DMB를 내장해 휴대성을 향상시킨 것도 눈길을 끈다.

컨버전스는 계속된다

미래 사회를 이끌 통신 인프라와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디지털기기 관련업체들은 향후 WIFI·WIBRO·홈네트워킹 등을 염두한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애플·델·소니 등 글로벌 대기업들의 저가 MP3P 제품 공략과 중국산 복제 기기들의 도전도 이들 업체들이 컨버전스화를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현재 디지털기기 관련업체들의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요구되는 컨버전스화는 이들 업계의 필사적 생존전략이기도 하다. 물론 컨버전스화를 역행하는 업체들도 있다. '소니'가 대표적인 케이스. 소니는 거품은 빠고 성능을 강화하자는 전략 하에 자사 MP3P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라디오 기능 등을 제거하고 가격을 다운시킨 제품을 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디지털기기가 점차 소형화되면서 얇고 가벼운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MP3P·디카·PMP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을 따로 들고 다닐 지 의문이 들기도 하는 게 사실이다. **K**